

자영업자 늘지만 대부분 '나홀로 창업'

광주·전남 자영업자 10명중 8명 고용원 없이 영세

경기 불황에 매출 부진·임대료 부담 커 폐업 악순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에 분식집을 새로 연 김모(55·여)씨는 창업자금도 넉넉하지 못했고 인건비 부담도 많았지만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당분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아들(28)의 도움을 받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 문을 연 터라 가게의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김씨는 "월세를 내기조차 벅찬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지급하기가 만만치 않아 일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씨처럼 창업을 하고도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지 못한 채 나홀로 장사를 하거나 무급으로 가족과 함께 일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속에 자영업자의 수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도 이른바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이어서 창업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의 3월 기준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자영업자는 45만4000여명으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같은 기간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가 9만2000여명에서 8만6000여명으로 1년새 6000여명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그만큼 늘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80%를 넘는 수치로 자영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라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이처럼 경기불황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운영구조가 날로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임대료 부담은 커지는데 매출이 부진하

다보니 직원 없이 운영하고 자칫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고용 없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가 1년 사이 11만9000여명에서 10만7000여명으로 1만2000여명이 줄었지만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무급가족종사자는 같은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 경영하는 음식점, 회사 등 사업체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 취업자로 분류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시간 기준은 주당 18시간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는 일반 취업자 기준(1시간 이상)보다 훨씬 길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과 취업시장 한파가 겹쳐 고용은 안 되고 자영업자는 증가하는 추세가 맞물리는 등 고용시장과 창업시장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포화상태로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창업시장에 무분별하게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말한다.

창업 관련 한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창업을 해서 살아남는 비율은 10%선도 안된다고 봐야하는 만큼 창업을 위해선 보다 철저한 계획과 전문가의 카운셀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창업을 하고도 직원을 고용하지 못한 채 나홀로 장사를 하거나 무급으로 가족과 함께 일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조계현 소장의

톡톡 창업 이야기



가업승계형 창업 주의사항

여전히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은 창업시장의 다양한 트렌드를 변화시켜가고 있다. 그런 변화 중 하나가 창업의 형태를 앞둔 자녀가 부모의 사업을 배워서 창업에 나서는 가업승계형 창업의 증가다. 가업승계형 창업의 증가이유는 크게 자녀의 시각과 부모의 시각 등 2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자녀의 시각에서 보면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창업의 증가와 정년보장되는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불안정한 직장생활 등이 부모의 가업승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모의 시각에서 보면 무한경쟁 속에서의 자녀의 쉽지 않은 사회생활에 대한 염려와 자신이 이미 단단하게 다져놓은 사업에 대한 지속경영과 발전 등을 고려하여 자식의 가업승계형 창업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흔히들 가업승계형 창업이라고 하면 단순히 부모의 사업장을 물려받는 승계형 창업의 의미로만 해석하기 쉽지만 부모의 일을 배워서 해당 아이템으로 새롭게 사업장을 창업하는 독립형 창업도 가업승계형 창업의 또 다른 형태로 분류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가업을 승계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부모의 사업을 분석하고 발전모델을 개발하여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진 사업장으로 탈바꿈시켜 부모의 사업운영 수준에서 이를 수 있는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현재 모 보험프랜차이즈의 경우 상위가 장모의 대박집 보험매장을 프랜차이즈로 전환시켜 수 백개의 가맹점을 거느리고 자매 브랜드들까지 성공시켜가며 전국적인 브랜드로 거듭난 대표적인 가업승계형 창업의 성공사례중 하나로 꼽힌다.

가업승계형 창업의 장점을 살펴보면 부모가 일궈놓은 안정적인 사업을 기반으로 하기에 노후가 많은데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업을 하기에 좀 더 철저한 준비와 시간 및 자금투자가 가능하여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며 창업형태 자체가 패밀리비즈니스기에 소극적이지 않고 사업에 대한 열정이나 의지가 강하여 좀 더 다양한 변화나 시도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단점을 살펴보면 부모의 자녀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사업방향에 대한 이견이 커져 가족간의 불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자녀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사업전략과 성급한 실행으로 인해 자칫 부모가 일궈놓은 사업마저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가업승계형 창업시 주의할 사항은 자녀는 부모의 사업장에서 먼저 성급하게 이런저런 시도와 변화를 주려는 준비되지 않은 의욕의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당 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차곡차곡 쌓아야하며 더 경쟁력있고 발전된 사업전략을 부모와 협의하여 꾸준히 개발하여 완성도 높은 창업전략을 세운 후 창업에 임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가치관과 사업스타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단계를 거쳐서 가업승계형 창업이 가족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오히려 가족간의 화합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가업승계형 창업의 실패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공통적인 부분이 꼭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절실함과 치열함의 부족에서 나온 너무 느슨한 마인드와 지나친 자신감이 가져온 디테일한 사업전략의 준비없이 성급하게 사업을 확대하거나 추진하여 일을 그르친다는 사실이다. 부모의 성공이 자식의 치열한 준비와 노력없이 고스란히 전해지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창업교육·점포 체험 하세요”

중기청,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창업교육부터 점포경영까지 경험하세요.”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의 창업생존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6기 교육생을 내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과밀업종에서 경쟁심화로 창·폐업이 반복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형 구조 극복을 위해 신사업이나 유망업종 중심으로 진행되는 창업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신사업으로는 3D프린팅, 재무라이프 컨설팅 등 신기술과 지식이 접목된 독창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다. 또 유망업종으로는 친환경 유기농산물 판매업, 로컬푸드 전문점

등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업종을 말한다.

중기청은 권역별 6개 사관학교(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과밀업종이 아닌 신사업 분야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창업교육, 점포체험, 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관학교별 45명 내외, 전체 225명 규모다.

2015년 기준 사관학교 졸업생의 창업 성공률은 71.7%, 월평균매출 979만원, 상시종업원수 0.7명을 기록한 바 있다.

사업안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실이나 지역별 전용교육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62-367-0135.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조달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최종 지정

다목적 산업용 드론 등 91개 제품

조달청은 ‘2017년 1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을 최종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달청은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해 10월 벤처나라를 개통했으며, 모두 3차례에 걸쳐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 벤처나라 홈페이지(http://venture.g2b.go.kr)에 게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이 추천한 기술·품질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제품 중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가 등록 대상이다.

올해 1분기에도 지난 2~3월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서류검토, 기술·품질평가, 구매업무심의를 거쳐 제3차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대상기업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이번 제3차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공기질 관리 시스템, 다목적 산업용 드론, 담배연기제거기 등 78개사의 91개 제품을 심사해 벤처나라 등록 대상으로 선정된 뒤 상품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등록상품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위해 우수한 지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올해 3월부터 유관기관의 추천을 광역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해 우수한 지역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벤처나라에 등록 및 홍보를 통해 판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광양, ㅅㅅ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중동 라히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 주인직매
- H.010-3605-5000

임야 ◆ 삽니다

신속 / 당일처리!
(주)오천개발
H. 010-3605-5000